

일본 우키요에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 작품에 나타난 문양을 중심으로 -

양지나·이상은**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강사·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Fashion Design Research on the Images Portrayed in Japanese Ukiyo-e - Focusing on Patterns -

Jina Yang · Sang-eun Le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2009. 6. 27. 접수; 2009. 8. 5. 수정; 2009. 8. 10. 채택)

Abstract

Ukiyo-e is the representative genre-painting of Japan, dominant during the 17th century Edo-Period (1503-1867). Ukiyo-e is mainly focused on expressing the lives of geishas, sumo wrestlers, and kabuki characters, who were the center of the Japanese amusement culture, and gained popular acceptance in Europe when it was first introduced in the late 19th century in the form of Japonism, having significant influence and impact on the impressionist artists of the time and on the design of western cloths.

In this papers, we will be primarily conducting a histo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Ukiyo-e, a representative genre-painting of Japan, and conduct a in-depth analysis of pattern expressed in the Kosode of women, represented through various different works of art.

In order to conduct a thorough analysis of pattern expressed in Ukiyo-e, we collected over 255 pieces of materials from existing foreign paintings as well as museums in the National Museum of Tokyo, Edo Museum, and the Harajuku Museum of Ukiyo-e.

This papers seeks to analyze and classify patterns expressed in the works of Ukiyo-e and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express in the pattern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abrics in the modern fashion design industry.

Key Words: UKIYO-E(우키요에/浮世繪), Edo Period(에도시대), Kosode(고소테), Analysis of pattern (문양분석)

Corresponding author ; Sang-eun Lee

Tel. +82-10-9071-3771, Fax. +82-2-450-3304

E-mail : sangeunlee@kku.ac.kr

I. 서론

우키요에(浮世繪)는 19세기 후반 유럽에 전파되어 인상파 화가들을 비롯하여 서양복식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의 풍속화이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자포니즘(Japonism)에 열광했던 유럽인들은 우키요에만을 일본을 대표하는 미술로 생각했으며, 때로는 우키요에를 일본 그 자체인 것처럼 여겼다.

우키요에는 에도시대(1503-1867)의 시민문화를 바탕으로 유흥문화의 중심에 있는 게이샤, 스모선수, 가부키 배우를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우키요에에 나타난 여성복식은 현대 패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1980년대 일본 디자이너들은 세계컬렉션에 진출하여 전통복식인 기모노와 서양복식의 디자인을 절충된 비구조적 조형미를 선보여 일대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에도 많은 일본디자이너들이 본인의 컬렉션에서 일본 기모노에서 나타난 문양과 색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19세기 말 자포니즘으로부터 현재까지 서양에서는 일본문화와 패션에 많은 영감과 영향을 받고 있다.

복식을 표현하는데 있어 문양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와 시대의 사상과 미의식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선진 문화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진 독자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던 우키요에 개념, 종류 및 특성 그리고 우키요에의 작품 속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 중 문양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키요에에 나타난 문양의 분석을 위한 그림 자료는 해외서적과 일본 동경 국립 박물관, 와세다 대학의 우키요에 박물관, 하라주쿠 우키요에 박물관에 현존하는 자료 255여점을 취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키요에 작품속에 나타난 복식의 문양을 종류별로 분석하고 문양에 나타난 특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현대 패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직물문양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I. 본론

1. 우키요에의 역사적 고찰

1) 우키요에의 개념

우키요에라는 말은 그리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에도시대 중에서도 덴나연간(1681-1684)에 비로소 정착되기 시작한 새로운 미술용어이다. 처음으로 나타난 기록은 1681년에 간행된 배해서(排諧書)(여러가지풀)에 기록된 ‘우키요에(浮世繪)의 아래에 자라난 생각의 풀’이라는 내용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때의 기록이 우키요에의 탄생을 알려준다.

우키요에는 17세기 일본 에도(현재의 동경)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당시 에도는 가장 번화한 도시로써, 상당한 수준의 독창성을 지닌 중산계급 문화가 등장했던 곳이었다. 이때의 그림들은 당시 삶의 즐거운 모습들을 선명한 색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키요에, 즉 ‘떠다니는 세상의 그림’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우키요에는 육필화로 시작하여 대부분 목판화, 즉 화가가 그린 원화를 기초로 장인들이 목판에 새긴 판화이다. 목판화는 비용이 적게 들어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많은 구매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우키요에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묘사했다. 에도의 일상에서 보이는 여러 모습과 역사화, 풍경화, 계절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식물화를 비롯하여 춘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제가 표현되었다. 특히 에도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기분전환을 했던 곳인 유곽과 극장을 그린 그림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창부들과 게이샤, 찻집의 아가씨들을 그린 그림들은 그 자체로 우키요에의 한 범주를 형성했으며, 미인도라 통칭되었다. 또한 가부키에서 인기 있는 역할을 맡은 배우를 그린 야쿠샤에 그림도 인기가 많았다.

2) 우키요에의 종류 및 특성

우키요에는 크게 육필화와 판화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육필화와 판화의 특성¹⁾

	육필화	판화
발생	근세초기 16세기 전반	17세기 후반 히시가와 모로노부에 의한 스미즈리에 ²⁾ , 1765년 스즈키 하루노부에 의한 니시키에 ³⁾
생산자	에시 ⁴⁾ 한사람	에시, 호리시 ⁵⁾ , 스리시의 분업
매수	한장	스리시에 ⁶⁾ 의한 대량생산
색채	에시가 의도한대로	초판이외는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유행	유행에는 완만	바로유행에 도입한다, 새롭고 기묘함.
판매업	주문품	가게
소비자	다이묘(大名)	서민

육필화는 화가가 붓으로 한필 한필 정혼을 담아 직접 그린 직필화이다. 주로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의뢰에 의해 그려 제작하는 작품으로 한 점 밖에 없으며, 아무나 살 수 없는 고가(高價)의 것이었다.

판화는 에도시대 이전에 판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한본끼의 삽화와 아치마이즈리로⁸⁾ 나눌 수 있다. 판화의 형식을 거쳐 완성된 그림만 보고 사람들은 화가가 누구일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판화는 한모토⁹⁾, 에시, 호리시, 스리시 이 네 사람에게 의한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판화는 육필화를 원화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판화로서의 맛을 내기 위해 밑그림을 그려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판화에 있어서는 원화를 제작하는 에시가 판화로서의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밑그림에 심려를 기울인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호리시, 스리시의 기술이 크게 작용한다. 아주 훌륭한 에시가 있다고 해도 서툰 호리시, 스리시의 손에서는 훌륭한 판화가 만들어질 수 없고, 이 삼자의 기능이 잘 합치게 될 때 가장 뛰어난 판화가 만들어진다. 이 네 명 외에 한사람을 더하기도 하는데, 바로 종이를 만드는 사람이다. 최고의 질감과 손으로 만들어진 뿔나무 껍질 종이의 표면은 색채를 더욱 아름답고 부드럽게 빛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우키요에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우키요에는 판화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우키요에가 가지고 있는 큰 특성은 역시 판화로써 서민들에게 다가갔으며,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절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서민과 교류하며 서민에게 가까웠던 우키요에는 결국 그 당시의 정치적, 역사적 시대상을 비추기에 손색이 없었으며, 이러한 변성은 우키요에가 단순한 향락적 전단지과 포스터의 수준에서 예술적인 경지로 올라간 큰 계기가 되었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우키요에의 예술적 발전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업적 차원에서 벗어나 현재까지도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재평가되며, 세계 속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우키요에 작품에 나타난 고소데 문양분석

문양에는 그 시대의 시대상과 문화가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평면적인 일본복식의 특성상 문양배치와 색채의 사용이 다양하게 시도 되었다.

일본 전통문양은 디자인 원리에 맞추어 아름답게 표현된 작품들이 많고 의상을 겹쳐 입을 때 표의뿐만 아니라 속에 겹쳐 입는 옷에도 문양을 넣어 문양간의 대비효과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데¹⁰⁾를 중심으로 평면적인 옷의 전면을 장식하는 사방 연속구성이나 상하구성, 중앙구성, 대칭구성, 단계식 배치, 좌우 비대칭 등의 과감하고 다양한 문양 구성 방식을 개발하였다.¹¹⁾

일본 복식에 표현되고 있는 문양은 자연을 모방한 것과 추상적인 것, 기하학적인 것 등이 있다.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문양의 장식부위가 평면적이고 직선적인 의복의 전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¹²⁾

본 연구에서는 문양의 분류기준을 에도시대의 문양서적¹³⁾을 기준으로 자연문양 (식물, 동물, 풍경), 기하학 문양, 기물(器物)문양, 문자문양, 복합문양등으로 나누어 우키요에 작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가 분석한 우키요에 작품은 총 255여점이었는데 작품을 살펴 본 결과 우키요에는 단독인물, 2-3명, 5-6명, 6명 이상의 인물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키요에 작품분석에서 연구범위를 6명 이내의 여성들로 한정지었고 작품 255여점에서 나타난 여자 449명의 고소데에 나타난 문양을 분석하였다.

<표 2> 고소데 문양 분석결과

문양 종류	총 명수	%
식물문양	143	32%
동물문양	6	1%
자연&풍경문양	19	4%
기하학문양	129	29%
문자문양	2	0%
기물문양	11	2%
무직문양	29	6%
복합문양	110	24%
계	449	

<표 3> 고소데에 나타난 식물문양 분석결과

식물문양	문양수	%
매화, 벚꽃	61	43%
소나무, 파초, 잎문양	18	13%
국화	13	9%
단풍, 은행	10	7%
쌍연, 박청해	10	7%
장미	8	6%
들판의플	8	6%
기타	15	10%
계	143	

일본의 자연문양은 크게 식물, 동물, 자연&풍경 문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키요에 작품

255여점에서 여자 449명의 고소데를 분석한 결과, <표 2>과 같이 식물문양이 32%, 자연&풍경문양이 4%, 동물문양이 1%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소데에서 식물문양이 32%로 가장 높은 수치의 주조문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식물문양은 잎을 주제로 한 문양, 나뭇가지나 넝쿨, 줄기를 주제로 한 문양, 꽃을 주제로 한 문양 등이 있다.

<표 3>은 문양분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식물문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이다. 작품 분석결과, 고소데에서 매화나 벚꽃의 비율이 4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벚꽃은 일본을 가장 대표하는 꽃으로 벚꽃을 모티프로 한 무너로서 작은 벚꽃, 사앵(가늘고 늘어지는 벚꽃나무), 8잎겹 벚꽃등 벚꽃의 종류도 많고 복식에도 자주 사용되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양이다. 또한 매화, 국화문 등과 함께 가문으로도 사용되었다. 벚꽃은 일본 민족을 상징하며, 봄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우 화려하고 다양하게 복식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1>은 Torii Kiyomitsu의 작품으로 고소데의 문양은 상반전개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벚꽃 문양이 고소데 전면에 잔잔하게 장식되어있다. 회색계열 바탕의 고소데에 황색의 벚꽃문양이 대비를 이루며 조화롭게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매화는 벚꽃과 함께 고소데에 꽃문양으로 많이 표현되었는데 이 이유는 색과 향기가 좋아서 옛날부터 복식의 문양으로 많이 애용되었다. 봄이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매화를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아름답고 달콤한 향을 느꼈다고 한다.¹⁴⁾

<그림 2>은 Utagawa Toyokuni 작품으로 왼쪽 여성이 착용한 고소데에는 매화 문양이 전면전개 되어 있으며 앉아있는 오른쪽 여성의 고소데에는 밑단 부분에만 매화문양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여성모두 매화문양이 청색계열로 표현되어 황색계열의 고소데에 강조색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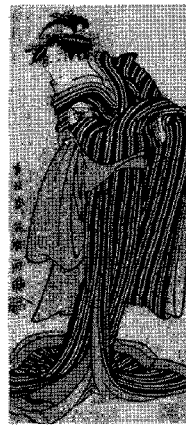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일본 전통문양에 나타난 식물문양은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전면을 향해 도안화된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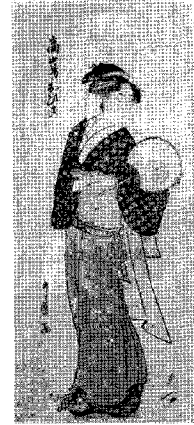
<그림 1> Torii Kiyomitsu, The Actor Segawa Kikunojoll in the role of Masko no Mae, 1761 (출처: Gian Carlo Calza (2005), Ukiyoe, New York: Phaidon Press Limited, p.61.)



<그림 2> Utagawa Toyokuni, Two Beauties, 1804-18 (출처: J.Hiller(1991), Japanese Colour Prints, NewYork: Phaidon Press Limited, p.105.)



<그림 3> Toshuai Sharaku, The Actor Iwai Hanshiro IV in the Role of Shinanoya Ohan, 1794 (출처: Gian Carlo Calza (2005), Ukiyoe, New York: Phaidon Press Limited, p.112.)



<그림 4> Kitagawa Utamaro, Naniwaya Okita, 1792-3 (출처: Gian Carlo Calza (2005), Ukiyoe, New York: Phaidon Press Limited, p.396.)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식물문양을 일본만의 양식으로 바꾸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다른 문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⁵⁾

<표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하학 문양이 29%가 주조문으로 사용되며 식물문양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일본 복식에서는 기하학적 문양이 고소데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문양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기초적이며 다양한 변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독특한 격자무늬 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⁶⁾ 또한 이러한 기하학 문양은 다른 문양과 혼합되어 복합 문양으로 표현되

기도 한다. 이는 공가(公家)의 장속(裝束)은 직물이 주체이고 여러벌을 겹쳐 입는 착장미(着裝美)로 치장하는 반면, 서민복은 한 장의 고소데 차림새였으므로 옷감자체에 문양이나 색을 넣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식적 요소를 가미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서민들은 소박한 훔치기나 판염 등 간단한 무늬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다양하게 변형시킨 줄무늬가 대표적이다.¹⁷⁾

<표 4>를 살펴보면, 고소데에서 줄무늬 문양이 33%, 하교문양이 21%, 격자문양이 16%로 주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찍부터 일본의 서민들은 소박한 훔치기나 판염 등 간단한 무늬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다양하게 변형시킨 줄무늬가 대표적이다.

<그림 3>은 Toshuai Sharaku의 작품으로 여성의 흑색 고소데에 전체적으로 백색계열의 줄무늬 문양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줄무늬 문양은 신장의 길어 보이는 효과 그리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⁸⁾

<그림 4>은 Kitakawa Utamaro의 작품으로 여성이 착용한 고소데의 윗부분이 하교문양으로 전개되었는데, 흑색바탕에 흰색으로 문양이 시문되어 더욱더 문양이 돋보이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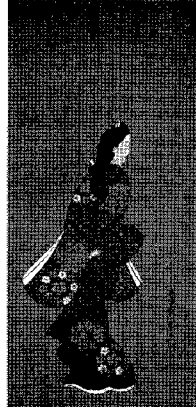
복식에 나타난 기하학 문양은 여성의 경우 줄무늬, 격자무늬, 별무늬, 하교문양 등의 다양한 문양들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하학 문양은 단독문양 외에 복합문양으로 유용하게 사용되

<표 4> 기하학 문양 분석 결과

기하학문양	문양수	%
별문양	20	16%
줄무늬 문양	42	33%
점무늬	2	2%
하교	27	21%
체크(격자)문양	21	16%
동근연속문양	12	9%
만자, 벼락무늬	2	2%
송이나무껍질문양	3	2%
계	129	



<그림 5> Sugimura Jihei, The court lady Sho-Shikibu, 1673-1681 (출처: Gabriele Fahr-Becker(2007), Japanese Prints, New York: Taschen, p.36.)



<그림 6> Hishikawa Moronbu, Woman looking back, 1690 (출처: Gian Carlo Calza (2005), Ukiyoe, New York: Phaidon Press Limited, p.340.)



<그림 7> Kitagawa Utamaro, 'Pensive Love' From the series Anthology of Poems, Love section, 1793-4 (출처: Gian Carlo Calza (2005), Ukiyoe, New York: Phaidon Press Limited, p.401.)

어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미적효과를 창출함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타 문양들에 비해 커서 일본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였다.19) 일본인의 기하학 문양의 독창적인 문양 개발은 평면적인 무지의 의복을 입었을 때 왜소한 인체의 드러남을 다양한 문양의 일시적 착시효과를 이용해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 중 다른 나라의 복식과 가장 특색 있는 문양이 복합문양이다. 일본의 전통복식에서는 자연문양과 인공문양을 자유롭게 혼합한 문양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기하학적 문양위에 구름문양과 식물문양을 표현하였고 사선의 줄무늬문양으로 통일감

있게 문양을 표현한 후 크기와 색상이 다른 문자를 혼합하여 표현하였다.

복합문양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전체 고소테 문양에서 24%를 차지하며 식물문양, 기하학 문양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에 따르면 기하학과 식물의 복합이 4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기하학과 동물이 13%, 기하학과 기물이 11%, 식물과 기물이 10%로 분석되었다.

<그림 5>은 Sugimur Jihei 작품으로 이 여성이 착용한 고소테에는 기하학과 식물 문양이 복합문양으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복합문양은 매우 율동적으로 표현되며 여성의 춤추는 모습과 함께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그림 6>은 Hishikawa Moronbu의 작품으로 식물문양안에 기하학문양이 매우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양으로 구성되었다. 이 고소테에서 기하학문양은 잔잔하게 표현되었고, 식물문양은 원형태로 크게 반복되며 적색 고소테에 율동감을 더해 주었다.

<그림 7>은 Kitagawa Utamaro의 작품으로 여성이 착용한 고소테에 기하학문양과 동물문양이 함께 어우러져 복합문양을 형성하였다. 이 고소테에서는 점문양과 새문양이 함께 쓰이며 새가 눈 속을 날아가는 듯 한 느낌으로 문양이 반복되며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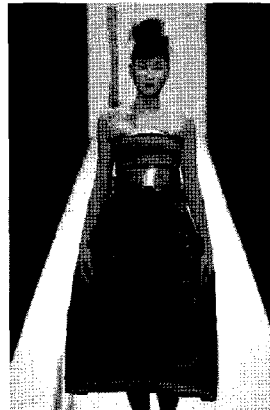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복합문양은 각기 다른 종류의 문양에다 색상을 통일하거나 문양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거나 도안화하

<표 5> 여자 고소테에 나타난 복합문양

복합문양	총 명수	%
기하학+기물	12	11%
기하학+동물	14	13%
기하학+식물	44	40%
기하학+문자	4	4%
기하학+풍경	3	3%
식물+풍경	10	9%
식물+기물	11	10%
식물+동물	8	7%
3가지복합	4	4%
계	110	



<그림 8> Hiroko Koshino
'09 F/W Collection
(출처: www.firstviewkorea.co.kr)



<그림 9> Hiroko Koshino
'09 F/W Collection
(출처: www.firstviewkorea.co.kr)



<그림 10> Tsmori Chisato
'09 S/S Collection
(출처: www.firstviewkorea.co.kr)



<그림 11> '07 F/W Haute Couture Christian Dior
(출처:www.firstviewkorea.co.kr)



<그림 12> '07 F/W Haute Couture Christian Dior
(출처:www.firstviewkorea.co.kr)

여 문양의 성질은 유지하면서도 서로 다른 문양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기하학문양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꾸밈의 미학'의 장식성이 가져온 문양의 발달로 생각된다. 그것이 바로 이질적 양상을 가지는 두가지이상의 문양이 하나의 옷에 혼합되어 표현되는 것으로 한 장의 기모노상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문양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양의 배치구성을 통해서 이는 다양하게 조화되며 겹쳐 입은 다른 의복의 문양과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²⁰⁾

III. 결 론

일본의 에도시대(1503-1867)에 '우키요에'(浮世繪, 세속적인 풍속화)는 예술 장르로 전성기를 누리고 서양에서 자포니즘 열풍으로 까지 확산시켰지만,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모든 종류의 문화가 서구로부터 수입되었고 특히 사진과 판화 기술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로 인해 우키요에는 쇠락기에 접어들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키요에의 작품에 나타난 여자 고소데의 문양을 분석해본 결과 일본인은 에도시대 여성복식의 고소데에 식물문양, 기하학문양 그리고 복합문양을 많이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우키요에에 나타난 문양 분석을 통하여 두 가지 이상의 문양이 하나의 옷에 혼합되어 표현되

는 복합문양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 복식의 특징인 중첩작장으로 복식이 착용되었을 때 다른 의복의 문양과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또한 문화의 교류가 있었던 중국, 조선은 옷감을 짤 때 문양을 넣어서 짜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 옷감이 완성된 후에 직접 그 위에 염색 또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자수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법이 복합문양을 구성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패션계에도 많은 일본 디자이너들이 본인의 컬렉션에서 일본 기모노에서 나타난 문양과 색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09 F/W 파리컬렉션에 디자이너 Hiroko Koshino는 일본의 오비를 의상에 벨트로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으며 우키요에 작품을 자카드로 제작하여 의상을 선보였다(그림 8, 9). 또한 Tsmori Chisato는 일본의 전통 복합문양을 화려한 색채와 함께 매 시즌 새롭게 재해석하여 파리컬렉션에 선보이고 있다(그림10).

서양 패션디자이너들도 일본문화와 패션에 많은 영감과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07 F/W Haute Couture 패션쇼에 Christian Dior은 일본의 기모노에서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전개하였으며, 우키요에의 대표적인 화가인 가츠이카 후쿠사이의 작품을 의상에 접목시켜 John Galliano의 천재적인 디자인 재능을 보여주며 패션계에 파장을 일으켰었다(그림11, 12).

본 연구를 통해 특징적인 일본의 전통적인 복식 요소들이 새로운 현대 패션의 영감을 원천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존에 선행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우키요에의 특성과 우키요에 작품속에 나타난 복식을 분석한 자료들은 앞으로 패션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전통 문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현대 패션의 흐름과 의복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직물 문양에 관한 중요한 기초 연구가 됨으로 앞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백승제 (2004). 조선 후기 풍속화와 일본 에도 시대 우키요에(浮世繪)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pp.18.
- 2) 먹색 하나로 표현.
- 3) 다색 인쇄한 우키요에 판화를 일컫는다. 색상이 선명해서 중국의 고급 비단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4) 밑그림그리는 사람.
- 5) 목판화인 우키요에의 도판을 판목에 새기는 사람.
- 6) 판목에 채료를 발라서 찍어내는 사람.
- 7) 목판으로 인쇄한 서적물로 에도시대에 팔린 책은 거의가 이것이다. 에도기의 한본은 삽화를 축으로 발전하는 것과 문학의 흐름으로 분류하는 방향이 있다. 한본은 그림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내용과 그 표지 색에 의해 아카혼, 아오혼, 쿠로혼, 키보우지, 고우칸이 있다. 그리고 모든 우키요에시들이 삽화를 그리고 내용도 샤레혼, 콧케이본, 닌조본, 요미혼 등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 8) 감상용으로 만든 그림.
- 9) 우키요에 판화나 한본이 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릴까하는 기획을 세우거나 에시, 호리시, 스리시의 프로듀서도 했다. 우키요에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모토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에시도 처음에는 한모토가 만든 게키사쿠혼의 삽화를 그리고 그것이 인기를 얻어야만 비로소 이치마이에를 그릴수 있다.
- 10) 오늘날의 기모노는 에도시대까지 고소대로 불렀다.
- 11) 구원정 (2005). 일본 우키요에에 나타난 중첩작장 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p.57.
- 12) 윤순봉 (1994).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 복식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6.

- 13) 熊谷 博人(구마가이 히로토) (2007). *江戸文様図譜(에도문양도보)*. 동경: CREO.
- 14) 김현진 (2006).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개발연구-한국, 중국, 일본의 16~19세기 복식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패션학과 석사학위 논문, pp.45~49.
- 15) 김세나 (2002). 일본전통문양을 응용한 현대패션 텍스타일 디자인-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의류과학전공 석사논문, p.32.
- 16) 김영자 (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p.182.
- 17) 김미자(1999). 한국 기본포와 일본 고소데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43호, pp.22.
- 18) 구원정 (2005). Op. cit., p.61.
- 19) Ibid., p.60.
- 20) Ibid., p.66.
- 20) Gabriele Fahr-Becker (2007). *Japanese Prints*. New York: Taschen.
- 21) Gian Carlo Calza (2005). *Ukiyoe*. New York: Phaidon Press Limited.
- 22) J.Hiller (1991). *Japanese Colour Prints*. NewYork: Phaidon Press Limited.
- 23) 고바야시 다다시 저 (2004). *우키요에의 美*. 서울: 이다 미디어.